



“창경궁에서의 하루밤과 드럼캣 공연이 제일 신났어요!”

한국어촌어향협회, 도서어린이 초청 문화행사 개최



한국어촌어향협회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7월 24~27일까지 당진군 난지도 소재 삼봉초등학교 학생 22명을 초청, '도서어린이 초청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서지역 어린이에게 도시문화 체험 및 현장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삼봉초등학교 어린이들은 24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63빌딩과 드럼캣 공연을 관람했으며, 25일 롯데월드 및 창경궁 문화체험을 하였고, 26일 해양경찰청 선박시찰과 여수 엑스포 관람, 27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특히 섬에서 볼수 없었던 타악퍼포먼스 공연 드럼캣은 아이들의 환호를 이끌어내었으며, 창경궁에서의 문화체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협회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큰 나눔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어촌관광 도우미 '바다해설사' 양성

어촌관광 전문 해설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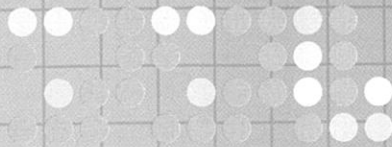
한국어촌어향협회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해 지난 8월 20~24일까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전체 신청자 67명에서 최종 선발된 예비 바다해설사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촌의 인문·자연 자원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번 중앙 집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및 해양과학, 인문, 수산업, 관광이론 등 4박 5일 동안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지역별 특화교육(2차)과 현장실습(3차) 과정을 거친 예비 바다해설사는 한국어촌어향협회장이 발급하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되며, 향후 해당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역사·문화·자연자원 등 어촌의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태어날 예정이다.



Photo News



현장 직원과의 집단적 소통강화를 위한 노사한마음 현장 타운미팅 어선 스크류 무상 점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9월 24~25일 통영, 25~26일 부안에서 노사한마음 타운미팅을 가졌다.

이번 타운미팅은 경영진과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어항정화사업 현장 실무진이 함께 업무추진현황을 점검·분석하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함께 자유토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액션러닝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타운미팅후 실시한 '쾌적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격포항내 정박중인 어선 스크류를 무상으로 점검하였으며, 어업인들과 함께으로 항내 청소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는 이와 더불어 강원, 남해, 울산지역 등에서도 노사한마음 현장 타운미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어촌어항협회(회장 방기혁)는 10월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어항·어장 등 해양환경 개선, 해양오염방지교육, 해양안전시설 표준화, 바다·어촌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